

2026학년도 제4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6. 1. 26.(월) 11:00
- 장 소 : 양캠퍼스 화상회의실(화상회의)

	간 사	위원장
결 재		

명 지 대 학 교

2026학년도 제4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2026학년도 제4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2026년 1월 26일(월) 11:00			
회의장소	양캠퍼스 화상회의실(화상회의)			
위원구성 및 참석	교직원 위원	장영순	기획조정실장	참석
		김한승	교육지원처장	참석
		안정국	학생처장	참석
		이준영	대학원 교학처장	참석
	학생 위원	강용민	인문캠퍼스 총학생회장	참석
		윤상준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장	참석
		신현석	인문캠퍼스 특수대학원	불참
		이현탁	자연캠퍼스 대학원	참석
	전문가	박준영	전)KB국민은행 부지점장	참석
	간사	안경훈	기획예산팀장	
회의 배석	기획예산팀 심소정, 국정애			
안건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 심의			

회의 주요 내용

- 위원장 : 간사에게 성원보고를 요청함.
- 간사 : 2026학년도 제4차 등록금 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라함)는 총원 9명 중 8명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위원장 :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위원들에게 등심위 개회를 선언한 후,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대학 등록금 책정(안)에 이어 제4차 회의를 진행함을 안내함.
- 간사 : 2025학년도 교육 및 학생 복지 개선 이행 사항을 설명하고 2026학년도 타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현황과 우리 대학 등록금 수준에 대해 설명함.
- 위원장 :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 측의 의견을 요청함.
- 위원 : 학생들은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해당 재원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 및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를 위해 등록금 사용 내역에 대한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함. 또한 어도비 프로그램 및 AI 관련 소프트웨어 등 교육용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청함. 아울러 콘센트 사용이 불가능한 강의실의 환경 개선과 U-Check 관련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교원 확보 및 전공 과목 개설의 다양화 필요성을 제기함. 와이파이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설비 개선을 요청함. 이 외에도 학생회관 공간 개선 등 전반적인 교육·복지 환경에 대한 요구 사항과 함께 학생회 행사 운영을 위한 예산 총원을 요청함. 한편,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등록금 동결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위원 :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등록금은 동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함. 다만, 향후 등록금 관련 논의에 있어 학생들이 인상의 정당한 효용 가치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구 사항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우선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명지대역 셔틀버스의 증차를 요청하였으며, 캠퍼스 간 셔틀버스 운영 및 수도권 통학버스 신설을 요구함. 또한 학생회관 방수 공사 시행, 명진당 화장실 리모델링, 명진당 제5일반열람실을 휴게 및 일반 열람실로 개편할 것을 요청

함. 아울러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통합 검색창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축제 예산 증액을 요구함. 특히 축제 기간 중 양 캠퍼스를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영을 요청하고, 벚꽃 축제와 단과대학 연합 축제를 통합하여 축제 장소를 야외 음악당으로 변경함에 따라 무대 설치 비용 및 단과대학 문화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학생 측은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수용될 경우,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대해 보다 정당한 효용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위원장 : 요청 사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나, 수용한다는 가정하에 학교 측이 제안한 등록금 3% 인상안에 대해 학생 측의 의견을 요청함.
- 위원 : 요구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될 경우 등록금 인상에 대해 일정 부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또한 공학 계열과 예체능 계열의 경우 타 대학 대비 순위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계열별 특성을 고려한 등록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위원 : 축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보다는 해외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두 개 팀으로 나누어 연 2회 운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요청함. 전반적인 요구 사항이 수용된다 하더라도 학교 측이 제시한 3% 인상은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현재 3% 이상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2%대 수준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함. 이에 따라 학생 측은 등록금 인상률을 2%대 또는 2%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함.
- 위원 : 콘센트 사용이 제한된 강의실의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노트북 사용이 필수적인 수업 특성상 전원이 차단될 경우 수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인공지능·소프트웨어융합대학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함.
- 위원장 : 인공지능·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콘센트 문제는 해당 단과대학의 국제관 이전 계획에 따라 향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와이파이 문제의 경우 주로 이용이 집중되는 피크타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을 투입해 전용선을 도입한 이후 속도가 개선된 점이 확인됨. 이에 정보지원팀과 협력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이 좋을 듯 함. 한편, 등록금 사용 설명회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단과대학 학생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어도비 프로그램의 경우 단가가 높아 전면 도입이 어려운 반면, AI 프로그램(ChatGPT 등)은 제한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위원 : 교원 충원과 관련하여 학교 측은 우수 교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공 과목 개설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과 노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함.
- 위원 : 해외 탐방 팀 수는 기존과 동일하나, 참여 인원을 조정하여 약 30% 정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위원 : 우선 순위를 고려할 때, 명진당 화장실 리모델링은 단계적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며, 제5일반열람실 개편은 1층 로비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반면, 셔틀버스 관련 사항은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위원 : 학생회관 내 화장실 칸막이 공사 가능 여부를 문의함.
- 위원장 : 명진당의 1층 공사와 제5열람실 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명진당 화장실 공사는 내년으로 미루고, 학생회관 공사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제안함. 설계는 올해 진행하고, 공사는 내년에 최우선으로 시행하기로 함.
- 위원 : 캠퍼스 간 셔틀 도입 예산이 있다면, 해당 예산을 활용하여 인문 캠퍼스 내 셔틀버스 운영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함.
- 위원장 : 명지대역 셔틀은 증차를 추진하되, 캠퍼스 간 셔틀 및 수도권 셔틀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해당 사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아울러 명지대역 셔틀에 일정 수준의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학생회 측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함께 편성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위원장 : 등록금 인상률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학교측에서는 약 3%대의 인상안을 제시함. 이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 위원장 : 자연캠퍼스의 경우, 공학·자연과학 계열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예체능 계열의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예체능 계열만 일부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함.
 - 위원 : 합리적으로 계산했을 때 등록금 인상률은 2.5%~2.6%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위원 : 인상하더라도 2.0% 수준 또는 이에 비해 0.1% 정도 높은 수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위원장 : 인상이 확정된 타 대학들의 인상률을 살펴보면 2.5%에서 3.19%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학교들의 수준에 맞춘다면 어느 정도의 인상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 위원 : 대학원은 오랜 기간 동안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음. 현재 대학원 운영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대학원만 등록금이 인상되어 왔다는 인식이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어 등록금 인상이 학부와 대학원 간에 어느 정도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함. 학부생들은 이러한 상황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학부 등록금이 동결되어 온 기간 동안 대학원은 지속적인 인상을 감내해 왔고, 최근 들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과 문제 제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냄.
 - 위원 :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시설 개선 등 다양한 투자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측의 입장이 터무니없지 않으므로, 학교의 예산 계획을 신뢰하고 일정 부분 학교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위원 : 좋은 교수님들께서 다른 학교로 이동하시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여건은 결국 비용으로 환산될 수밖에 없는 만큼, 학생회 측에서도 일정 수준에서 용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상률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냄.
 - 위원 : 등록금 인상률이 3%를 넘는 경우 학생회 측에서는 부담이 클 수 있으나, 다른 대학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거나 낮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2.8%~2.9% 정도가 무리하지 않은 적정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위원 : 다른 대학들의 인상률 수준을 참고하여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양측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냄.
 - 위원 : 공간디자인학과는 교육부 표준 분류상 예체능 계열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건축대학에 포함되어 있어 소속 학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등록금이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함. 이로 인해 유사 계열로 볼 수 있는 디자인학과와 비교했을 때도 등록금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따라 등록금 책정 기준이 명확하게 공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단과대학별로 등록금이 유사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도 스포츠·예술대학의 경우 단과대학 내 학부별로 등록금 차이가 비교적 크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함. 이러한 등록금 책정 기준이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계열 간 등록금 차이가 이 정도로 크게 발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한 계열별 차이를 일정 부분 인정하더라도, 현재의 등록금 책정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간사 : 공간디자인학과는 교육부 표준 분류상 예체능계열로 분류되어 있음.
 - ※ 심의 후 공간디자인학과는 건축대학 소속으로 건축학과와 동일한 등록금이 적용됨이 확인되어 정정함.

리

한

가

한

- 위원장 : 평균 인상률을 약 2.8% 수준으로 맞추고, 인문과 자연은 별도로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함.
- 위원 : 올해도 인문캠퍼스의 인상률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위원장 : 몇시간에 걸친 충분한 심의 결과, 등록금 인상률은 2.78%로 귀결되는바 이에 따라 자연캠퍼스의 경우 공학·자연과학 계열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인상 부담이 큰 예체능 계열(스포츠·예술대학)은 2.53%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또한 학생회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에 학생측 요구사항을 정리함.
- 출석위원 : 학부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전원 동의함.

[인문캠퍼스 요청사항]

- 등록금 사용 설명회 : 단과대학 학생회 참여하에 진행하기로 함.
- 강의실 환경 개선(콘센트) : 인공지능·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국제관 이전 후 개선예정
- U-Check 관련 사항 : 확인하기로 함.
- 교원 총원 및 전공 개설 다양화 : 융합 전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원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기로 함.
- 와이파이 문제 : 실제 측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크 시간대에 재측정하기로 함.
- 학생회관 공간 개선 및 정비 : 학생회 측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함.
- 학생회관 화장실 칸막이 설치 : 추진하기로 함.
- 단과대학 학생회 행사비 : 추가 지원하기로 함.
- 학생회 측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 : 반영하기로 함.

[자연캠퍼스 요청사항]

- 명지대역 셔틀 : 증설하기로 함.(캠퍼스 간 셔틀과 수도권 셔틀은 추후 논의)
- 학생회관 보수 :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여 진행하기로 함.(전체 방수, 외관 도색, 창문 코킹 작업 포함)
- 명진당 화장실 :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시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함.
- 명진당 제5일반열람실 : 일부 강의실 및 노트북 열람실 형태로 조성하며, 콘센트 설치 포함하여 개선하기로 함.
- 홈페이지 통합 검색창 : 개선하기로 함.
- 단과대학 학생회 행사비 : 추가 지원하기로 함.
- 학생회 측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 : 반영하기로 함.
- 위원장 : 다음으로 외국인 학생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정 상한선 3.19%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15%의 인상률을 제안함. 또한 2차 회의에서 위임된 이중언어과정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함.
- 출석위원 : 외국인학생 책정(안)에 대하여 전원 동의하고 2차 회의에서 위임된 이중언어과정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서도 전원 동의함.
- 간사 : 등록금 인상 금액 산정 시, 대학원과 마찬가지로 학부 등록금도 천원 단위 반올림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음.
- 출석위원 : 등록금 금액 반올림에 전원 동의함.
- 위원장 : 전원 동의함에 감사를 표하고 대학 등록금 인상 책정(안)이 상기 의결내용과 같이 전원 동의로 심의·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위원장 : 인상된 등록금이 우리 대학 학생들의 교육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안내를 하고, 14시 50분에 폐회를 선언함.

2026. 1. 26.

작성 자 : 기획예산팀장 안 경 훈

